

아내의 복종의 의미

성경말씀: 엡5:22-33

지난 주 요약: <가정의 목적>, 왜 결혼하는가? 1. 하나님은 조화와 통일의 하나님이다(마귀의 반역).
2. 가정과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질서를 나타내야 한다. 3.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순종을 보여 주기 위해 가정과 결혼이 필요하다. 4. 영적 싸움을 위해 동반자가 필요하다. 5. 영적 싸움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 6. 영적 싸움의 계승자들

아내의 복종 큰 문제다

가정과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남편과 아내, 아내의 복종(22,24), 남편의 사랑(25, 28)
아내의 복종은 설교하기 힘든 주제이다. 복종 이야기가 나오면 머리털이 곤두서는 분들이 있다. 그럼에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듣고 순종하면 변화가 생길 것이다. 때도 빨리 맞는 게 낫다.
우리 집: 아내, 딸만 셋, 어머니, 더욱이 내가 늘 성경적인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에 가르치기가 쉽지 않다. 여성 상위시대라고 해서 여권이 신장되고 여자 대통령도 나옴.

현시대: 우스갯소리 “많은 가정에서 여자가 51%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비유: 베드로가 천국 문에서 두 줄로 남자들을 세움: 한 줄은 가정을 치리한 남편들, 다른 줄은 부인이 가정을 치리한 남편들, 모두가 둘째 줄에 섰는데 한 남자만 유독 첫째 줄에 섰. 베드로의 질문에 그 남자는 “제 아내가 거기 가서 서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머리는 맞는데 목이 머리를 움직인다. 그럼에도 목사는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므로 많이 공부한 뒤 <아내의 복종의 의미>

복종이 아닌 것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한다. “자매님들은 주님을 사랑하는가?”
에베소서 5장의 문맥: 남편과 아내는 구원 받은 성도들이다.

지금 이 말씀은 정상적인 부부에게 말하고 있다. 남편이 간음한 경우, 폭력/폭언을 일삼아서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는 복종이 적용되지 않음

영어로는 submission이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자신을 낮춘다는 말이다.

이 말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여자가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다. 둘 다 평등한데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기 위해 아내가 스스로를 낮추어야 한다는 말이다. 마귀에게 빌미를 준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할(자기를 낮출) 필요가 없는가?

에베소서 5장 15-21과 특히 21절을 문맥에서 살펴보면 일반적인 법칙은 남편도 복종해야 한다(아내에게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22절부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주인과 종의 관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질서와 통일을 이루려는 측면에서 아내와 자식과 종이 스스로를 낮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 이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복종해야 하는 이유

1. 창조의 순서: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짐(딤후2:13)
2. 창조의 기원: 남자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했으나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함(창2:22).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옴(고전11:8)
3. 창조의 목적: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어짐(고전11:9)
4. 남자가 여자의 이름을 붙여줌(창2:23): 권위의 문제
5. 남자는 대표이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직접 들은 자는 아담이다. 이브는 그때에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다(창2:16-18).
6. 그런데 여자가 먼저 범법하였다(딤후2:14). 즉 마귀는 여자의 약함을 보고 여자가 남편의 권위에 따르지 못하게 하면서 접근하여 여자를 넘어뜨렸다(창3:1).
7. 그런데 하나님은 이브가 아니라 아담을 부르신다(창3:9). “네가 어디 있느냐?”
8. 범법 후에 여자는 남자를 열망하며 그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창3:16).
9.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딤후2:12; 고전14:34). 딤후2:15
10.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고전11:7).

종합 정리

1. 여자는 남자와 다르며 남자를 보완해야 한다. 여자가 남자처럼 되려 하거나 남자처럼 행동하거나 남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권한을 빼앗는 것은 안 된다.
2. 남자가 여자의 머리 됨은 군대에서 지휘관을 세우는 것과 같다. 지휘관이 없으면 패망
 - a. 국회나 위원회 집사회를 열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의장 선출
 - b. 축구팀을 만들면 곧바로 주장을 세운다, 남편은 가정의 주장이다.
3. 그러므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지정에 순종하라는 것이다.
4. 고전11:3,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님은 원래 삼위일체, 동등함. 그러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측면에서 아들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기를 아버지 밑에 놓았다. 남편과 아내도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 남편은 영적 전투의 지휘관,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주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5. “여자가 남편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한데 어떻게 남자에게 복종하나요? 돈도 더 잘 벌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것이다. 아내는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
6. 주일학교 교사의 집안 방문(캐트린), 이민 온지 5년 됨, 아이의 엄마가 틈 날 때마다 아이들 아빠 이야기를 함. 4살 먹은 아들 “이제 아빠 올 때 되었지요?”, 나이든 딸 “아빠를 위해 케이크를 만들게요”, 가려고 하니 캐트린이 “기다렸다가 아빠를 만나고 가세요.” 아빠는 누구일까? 아빠 등장,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말도 약센트가 강하고... 즉 남편의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태도가 중요한
7. 아이들의 불순종의 많은 부분은 여자에게서 비롯된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 집안은 이미 권위가 깨졌기에 아이들이 엄마에게 불순종한다.
8. 이런 차원에서 성도는 성도와 결혼을 해야 한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참된 결혼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후6:14).
9.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원활하게 돌아간다(엡4:15-16).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10.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이다. 즉 머리와 몸의 관계이다. 몸과 머리가 따로 놀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경쟁 관계가 아니다. 한국과 일본 관계No!, 몸과 머리는 하나이다.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다.
11. 아내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No!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따라야 한다. No!
 - a. 복종의 의미는 아내 혼자 따로 놀면 안 됨을 말한다. 몸이 머리와 따로 놀면 발작이 일어난다. 혼돈이 일어난다.
 - b.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므로 아내는 독자적으로 행동해서 안 되고 먼저 행동해서도 안 되며 수동적으로 행동해서도 안 된다. 중풍 병자의 경우 머리는 명령을 내려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 c. 그러므로 주도권과 통솔권은 남편이 갖지만 남편과 아내는 제 때에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것은 결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이다.
12. 남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낮추고 최선을 다해 그를 도와야 한다. 경기를 하면서 주장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다.
13. 그리스도인 아내는 “나는 주님께 복종하듯 내 남편에게 복종하겠다”고 작심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14. 24절의 모든 일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는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양심에 저촉이 되는 것을 요구하면 복종하지 못한다. 아내도 마찬가지이다. 남편이 아내의 양심까지 지배하지는 못한다.
15. 복종의 문제로 고민하는 아내들에게 주고 싶은 말
 - a. “나는 왜 이 남자와 결혼했을까? 그때 결혼 생활은 어떠했는가?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 b.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 c.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
 - d. 마5:43-48,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